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1년 8월

선교편지 제 146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7월에만 코로나로 인한 교회 집합 규정이 3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6월 중순부터

주일에 교회 출석은 물론이고 모든 바깥 출입을 제한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에 집합 규정은 도리어 완화되어 정원의 10%가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것과는 비교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많은 교인들은 안타까움 속에 집에서 주일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주부터 정원의



의 30%까지 출석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어, 그나마 기존의 예배의 모습을 조금 더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전처럼 모든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는 아직 인터넷을 통한 화상 예배를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연결하려고 몇몇 관련 업체에 연락을 해 보았지만,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중심 기지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많은 설치 비용과 유지비를 지불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저희 교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주변의 학교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수없이 듣고 있는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 예배'는 아직까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교회도 시급하지만, 사실 학교는 더 절박해 보입니다.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과제물을 받아 집에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으며, 그 외 고등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부모들이 학교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학생 대신 출석과 과제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년 반이나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도 복잡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고충은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스럽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서 원활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제한이 느슨한 수요일 예배와 심방을 통해서 복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로 인해서 외출 제한이 많은 학생들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제반 방역 규칙을 준수하며 심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낙담하며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




편으로 인해서 공부를 계속하기도 어렵고,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본인들도 공부보다는 가정 형편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더욱 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때이고,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과거에는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하여 소위 '평삼주요'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보다는 주로 장년들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였는데,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평삼주요'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역사순으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매주 숙제도 제출하고 평가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읽기 일정표와 숙제를 직접 각 집으로 심방을 통해 매주 전달하며, 성실하게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월말에 '쌀'로 시상을 하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 1:4)**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참석이 쉽지 않지만, 이런 중에도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연약한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지 모르겠습니다.

아팔라야 예일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 한 시간 전인, 오전 10시에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기다리는 교우가 있습니다. 70세 되신 '로미오' 교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외출을 금하고 있지만, 로미오 교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옵니다. 부인과는 오래 전 사별을 하고, 자식들은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입고 있는 옷도 남루하고, 잘 씻지 않은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입니다. 직접 손으로 'Aplaya Yale Church' 라고 쓴 비닐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소중하게 여기는 다양한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물통, 알코올 통, 볼펜, 빗 등과 용도를 알 수 없는 것들을 소중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교회 문을 들어서면서, 아침 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한 듯한 농담을 먼저 걸어옵니다. 한바탕 떠들썩하게 웃고는, 매주 반복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우선 손발을 물로 씻고, 체온도 다시 한번 측정하고, 교회에 비치한 알코올을 가지고 온 빈 병에 가득 채우고, 마스크도 한 장 더 여분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간단한 음식으로 친교를 나누는데, 가방 속에 여분의 음식과 준비한 음료수 통에 주스를 가득 채웁니다. 또한 이외에도 교회에서 별도로 챙겨주는 음식도 받아 들면 매우 흡족한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직접 붉은 색 펜으로 쓴 'Believe in Jesus Christ! - Aplya Yale Church' 종이를 보여주면서 항상 전도를 하고 있다고 저를 안심시키며 교회 문을 나갑니다.

'크리스토퍼' 부부도 코로나 중에 예배 출석에 열심입니다. 집 근처에 핀 꽃을 매주 화병에 담아 강대상 앞에 놓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껏 만든 간식을 매주 가지고 와서, 친교 시간을 더욱 푸짐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형편이 어려운 선교지에서 이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교우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아팔라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인사를 할 때 좀 더 정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는 이들의 문화와 달리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곤 합니다. 이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 매우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크리스토 부부는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크리스토 교우는 흰색 소를 키우는데, 매일 교회 근처까지 소를 몰고 와서 풀을 뜯게 하면서 교회 안과 밖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헤젤'은 장학사역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대학생입니다. 사실은 아팔라야 교회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학원 사역을 할 때 얼굴을 익혔던 여학생인데, 아팔라야 교회가 건축이 되고, 첫날부터 친구들과 함께 빠지지 않고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젤은 어린 나이이지만 집 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고,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동생을 돌보고 가정을 꾸려 나가



면서, 시간을 내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출석하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 키보드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찬양팀에서도 섬기고 있습니다. 장학생들과 매월 한 번씩 간단하게 개인 면담을 하면서 형편을 살피고 격려를 하고 있는데, 헤젤과의 면담은 여느 학생들과 달리 평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생활이 힘들고 서러웠던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쉬지 않고 쏟아 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말을 잊지 못합니다.

비록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사랑이 너무 큼니다. 아무쪼록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온 주민이 온전히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